

박선호 차관, “도시재생의 정책 체감도 높일것”

15일 제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도시재생 주요현안 논의

□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15일(금) 서울 스퀘어에서 열린 『제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』에 참석하여 3년차를 맞이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창출 의지를 밝혔다.

* (도시재생특별위원회)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도시재생 관련 국가시책, 국가지원사항 결정 등 주요사항 심의·의결

** (실무위원회) 특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심의 (위원장 : 국토부 제1차관 및 국무2차장 / 위원 : 실·국장급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)

○ 제4차 실무위원회에는 16개 부처* 실·국장과 도시·건축·경제·사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이 참석하였으며,

* 기재부, 교육부, 과기정통부, 행안부, 문체부, 농림부, 산업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고용노동부, 여가부, 국토부, 해수부, 중기부, 문화재청, 산림청

- 도시재생 뉴딜사업 37곳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국가지원사항의 변경·승인(안)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, 도시재생 인재양성 방안 등 도시재생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□ 박선호 차관은 이 자리에서 “금년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한지 3년차에 접어드는 해로 그 의미가 특별하다”고 하며,

○ “금년은 뉴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구도심의 활력 제고 등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”임을 밝혔다.

○ 또한, 박 차관은 “도시재생사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, 각 부처의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”을 강조하며, 부처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.

2019. 3. 15.

국토교통부 대변인